

朴承任의 학문적 지향과 16세기 영주지역의 ‘集團知性’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師友論: 퇴계학적 門路 정립과 남명학에 대한 친연성
- III. 尊賢論: 院享論과 退溪書院論의 계승
- IV. 學問論: 歷史認識과 歷史記述論
- V. 學派論: 嘯峯門派와 16세기 榮州의 ‘集團知性’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退溪學의 부분 집합으로서 16세기 榮州의 지식인 사회를 주목하고, 그 핵심 인물로 朴承任(1517-1586)을 설정한다. 박승임은 엘리트 문신으로서 생애의 많은 시간을 관계에서 보내면서도 배움에 뜻을 두어 적지 않은 저작을 남겼다. 스승 이황과 삶의 궤적이 너무도 흡사하였지만 조선의 사람들은 그를 문장가로 기억했을 뿐 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爽實이며, 이 글은 박승임을 향했던 집단망각 또는 집단적 무관심에 대한 역사학적 해명이다.

退溪學派라는 완전체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門派로 일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 ksoya@aks.ac.kr

어지는 지역학의 숨이 학파로 착상되는 것일 뿐이다. 퇴계학의 영주지역 문파는 박승임이 양성했던 嘯臯門派였다. 소고문파는 퇴계학의 4대 문파로 일컬어지는 月川·鶴峯·西厓·寒岡門派보다 선행했고, 그 집단은 다른 어떤 문파에도 손색이 없는 양질의 학술문화적 역량을 온축하고 있었다. 이것이 퇴계학을 입론함에 있어 박승임과 소고문파를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주제어

朴承任, 榮州, 伊山書院, 退溪學派, 嘯臯門派

I. 머리말

1583년(선조16) 박승임은 전 좌의정 盧守愼(1515-1590)으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았다. 그 청탁이란 얼마 전에 작고한 부친 盧鴻의 비문 찬술이었고, 전직 재상의 뜻밖의 문자 청탁에 박승임은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이 교차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목을 ‘움추렸다[縮頸]’고 한다.

뛰어난 학식과 문장으로 鄭夢周의 ‘圃隱集序文’, 조광조의 ‘靜庵神道碑銘’, 李延慶의 ‘灘叟墓誌銘’, 李耜의 ‘陰崖行狀’, 李恒의 ‘一齋墓誌銘’, 李彦迪의 ‘晦齋集序文’, ‘晦齋先生年譜後敍’,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등 당대 斯文의 중요 문자를 도맡아 찬술했던 노수신이 自家의 핵심 문자를 박승임에게 부탁한 것이다. 노수신은 문자청탁을 통해 박승임의 학행과 문장에 대한 신뢰를 표했고, 박승임은 ‘縮頸’의 겸양으로 相臣의 성의에 화답함으로써 이 일은 사람의 미담으로 회자되었다.¹⁾

‘縮頸故事’는 분명 미담이었지만 이로써 박승임에게는 ‘문장가’라는 표시가 늘 따라 붙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문장가의 이미지는 그의 학자적 모습을 더욱 두텁게 에워쌌고, 退溪學과 退溪學派를 입론할 때 그와 그가 육성했던 嘯臯門派는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爽實이며, 한국지성사의 흠결이다.

동양의 역사에서 朱子와 李滉에 견줄만한 문장력을 갖춘 이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을 문장가로 기술하는 史家は 존재하지 않는다. 評人에 있어 문장이 학문을 가릴 수 없는 그 시대의 논법 때문이다. 그 논법이 유독 박승임에게만 적용되지 못한 것은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어 평인의 불공정성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16세기 퇴계학과 형성의 실제적 장면으로서 박승임의 학자적 역할과 ‘嘯臯門派’의 동향을 포착, 분석한 것이다. 퇴계학과를 특정 학인

1) 鄭經世는 李堧으로부터 선대의 비문 청탁을 받고 ‘蘇齋-嘯臯故事’를 언급한 바 있다(鄭經世, 『愚伏集』 卷10, <答李叔平戊午> “阡表 揆之情分 不敢不承教 故諾之久矣 今見紀事之文 簡而不短 文而不冗 令人添減不得 此嘯臯之所以縮頸於蘇齋之託也 恐不能副盛意以病吾子 奈何奈何”).

을 정점으로 지역화 되어 있었던 ‘집단지성’의 ‘슴’이라고 정의할 때, 16세기 영주 ‘집단지성’의 분류는 ‘소고문파’였다. 특히 소고문파는 퇴계학의 중요한 부분집합으로서 월천·학봉·서애·한강분파보다 선행하는 집단이었음도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이 글의 또 다른 초점을 소고문파의 역사적 실체성을 해명하는데 맞추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II. 師友論

: 퇴계학적 門路 정립과 남명학에 대한 친연성

박승임이 배움의 길로 나아간 것은 8세 때이다. 서울생활을 하고 있던 아버지 朴珩을 대신하여 교편을 잡은 사람은 어머니였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학습한 것은 『孝經』이었다. 김씨부인은 영주의 명벌 예안김씨 金萬鑑의 따님으로 아들의 초학을 책임질만큼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탁월했던 박승임은 뛰어난 학습 효과를 보였다. 7세에 『효경』을 읽었을 때는 ‘評史’의 식견을 드러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9세에는 64괘와 爻辭를 작성하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12세에 지은 시에는 학문의 본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아냈고, 14세에는 숙성한 문예를 염려했던 집안 사람들이 赴學를 만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소고연보」는 10대 시절 박승임의 천부적 자질을 끊임없이 소개한다. 예컨대, 16세에 性理書를 분류했고, 18세에 한성시에 장원했으며, 19세에 『周易』을 읽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의 10대에 고민과 난관의 자취는 발견되지 않는다. 동시대의 또래들을 제치고 질주하는 모습만 착상될 뿐이다.

20세 되던 1536년, 박승임은 이웃 고을[醴泉]의 예천권씨 집안에서 아내를 맞았다. 이 혼인은 成娶라는 통과 의례를 넘어 사립사회에서의

자격 강화에 보탬이 되었다. 처부 權五紀(1463-미상)와 처숙 權五福(1467-1498)은 金宗直 문인이라는 학벌에 문과 합격자는 능력을 더함으로써 조선의 촉망되는 문신의 길을 걸었다. 특히 형제는 戊午史禍에 연루되어 권오기는 유배되고, 권오복은 처형을 당하는 시련이 따랐지만 그것은 금세 훈장이 되어 내외 자손 발신의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金宏弼과 朴英의 문인으로 ‘明道(程顥)의 기상을 지닌 학자’로 칭송된 朴紹와의 인척관계[3從] 또한 그의 학문·사회적 입지 강화에 작지 않는 도움이 되었다.

종전까지 척연 중심의 인척관계망 속에 있었던 박승임의 존재는 혼인을 기점으로 팽창을 거듭한다. ‘東銘’과 ‘西銘’을 체독하고 주자의 글씨를 본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자학의 길에 들어섰고, 21세 때인 1537년 草谷으로 가서 이황을 사사하면서 학문의 본래에 진입하게 된다. 「소고 연보」는 이 무렵 박승임의 학자적 행보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

21세. 퇴계 이선생 문하에 들어갔다.²⁾

22세. 龔巖 李賢輔를 찾아 뵈었다. 이공이 일찍이 퇴계 선생과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는 많지만 朴重甫(朴承任)처럼 일찍부터 학문의 向方을 알고 독실하게 공부하는 이는 없다’고 했다. … 퇴계 문하에서 『禮經』과 『周易』을 읽었다.³⁾

이처럼 그는 바른 門路에 들어 向方을 알고 독실함을 추구하는 ‘好學之士’로 인식되면서 주변의 기대를 받았다. 이후 박승임의 학자적 인생은 ‘퇴계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런 흐름은 이황의 사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황·이현보 등 석학들의 신뢰는 사우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적인 예로서 1544년 2월 李彦迪(1491-1553)이 박승임을 방문했다. 16세기 중엽 조선 학계의 거장이며 현직 경상감사였던 이언적이 그

2) 朴承任, 『嘯臯集』附錄, 「年譜」〈丁酉〉(1537).

3) 朴承任, 『嘯臯集』附錄, 「年譜」〈戊戌〉(1538).

를 찾은 것이다. 이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河圖洛書의 이치를 토론했고, 이 과정에서 박승임은 이언적으로부터 극찬을 받기에 이른다. 그것은 후학에 대한 학자적 인정이었다.

바로 이해 박승임은 사람의 극선인 湖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 엄격하게 말해 사가독서 제도는 국가주도형 ‘관료계발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학문’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황·김인후·노수신 등 16세기 사상계의 거장들과 同選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1545년 홍문관 저작 재임시 趙光祖의 신원 요청,⁴⁾ 1547년 乙巳土禍의 여파로 유배형에 처해진 李彦迪·權機를 전별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람에서의 존재성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퇴계문하에 입문하던 1531년(중종26)부터 약 10년 동안 박승임은 李滉·李彦迪·李賢輔·周世鵬·權機 등 당대 석학들과 긴밀한 교유망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의 학자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박승임은 32세 되던 1548년부터 이황과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된다. 당시 이황은 단양군수에 재직하고 있었다. 박승임은 두 차례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학문을 토론하는 한편 朱子書의 탐독하며 후진 양성에 진념했다. 특히, 1548년 9월 이황이 말미를 얻어 환가했을 때는 평소의 ‘疑問處’를 질정하여 바로잡는 등 ‘師弟講磨’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된다. 『소고연보』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1548년 9월. 퇴계 선생을 찾아가 뵈었다. 당시 퇴계 선생이 말미를 얻어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선생이 禮學을 精明하게 익혔는데, 『儀禮』를 읽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번번이 표시를 하거나 혹은 기록을 하여 모은 것이 두 질이나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퇴계 선생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를 『四禮辨解』, 『儀禮講錄』이라 하였다. 또한 『周易』의 卦象과 爻辭, 河圖洛書의 數理를 부연하여 각각 한 책을 완성하였다. 이는 모두 선생이 손수 기록하고, 퇴계 선생이 검토하여 교정한 것이다. 선생의 둘째 아들 滌가 선생이 평소 저술한 것과 퇴계 선생과 주고받은 서찰

4) 『仁宗實錄』〈仁宗 1年 4月 7日(己亥)〉；〈仁宗 1年 5月 19日(庚辰)〉.

및 강론한 문자들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훈계를 지키지 못하여 소장한 書籍들이 모두 유실되어 선조의 문적들이 마침내 없어지고 말았으니 애우 애석하다.⁵⁾

비록 사제간에 긴밀한 학문 교유 과정에서 작성된 玉稿手澤은 유실되었지만 위 인용문은 박승임이 퇴계문하의 고제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두 사제간의 학연은 문자 및 사람의 교류로 이어져 1549년(명종4) 이황은 박승임의 모부인 예안김씨의 墓碣銘을 찬했고,⁶⁾ 1551년 박승임은 아우 承倫을 퇴계문하에 보내 수학케 했다. 承任·承倫 형제의 퇴계문하 출입은 朴氏家學이 ‘退溪學’에 연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박승임에 대한 이황의 신뢰와 기대는 더욱 깊어졌다. 후술하겠지만, 尊賢事業과 관련하여 이황이 安瑨에게 보낸 서간에는 이황의 ‘嘯臯認識’이 집약되어 있었다.

① 퇴계선생이 일찍이 榮川 군수 安瑨에게 소수서원의 일을 논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영천에는 朴重甫(朴承任)가 있고, 풍기에는 黃仲舉(黃俊良)가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선배로써 후배들의 존중을 받고 있으며, 한 고을의 창도자입니다. 성주께서 몸소 이 두 사람을 찾아가 힘써주기를 청하면, 선비들이 반드시 뒤처질까 걱정하며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고 했다.⁷⁾

② 풍기에는 黃仲舉(黃俊良)가 있고 영천에는 朴重甫(朴承任)가 있습니다. 先進들은 후진들이 우러러보는 자이며, 한 지방의 인도자입니다. 城州가 몸소 이 두 사람을 찾으시어 간곡하게 나서도록 하여 날짜를 정하여 서원에 모이도록 하고, 두 사람이 또 각각 그 고을의 선비들에게 편지를 보내 불러들인다면, 선비들은 반드시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감히 뒤처지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두 고을의 선비가 일단 모이게 되면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5)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戊申>(1548). 이하 『嘯臯集』 인용문은 李東吉·安樞權敬烈, 國譯, 『소고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참조.

6) 李滉, 『退溪集』 卷40, <成均進士朴君配淑人禮安金氏墓誌銘 并序>. 이황과 박승임은 혼맥을 통해 간접적인 척연이 형성되어 있었다. 박승임의 장자 朴灋의 처부 許士廉은 이황의 처남이었다. 즉, 이황은 박록의 처고모부였던 것이다.

7)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壬戌>(1562).

하여 크게 更張하여 서원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면, 사람들이 당초에 바라던 마음에 거의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⁸⁾

박승임에게 있어 1550년(명종5)에서 1570년(선조3)에 이르는 20년은 환로의 다단함 속에서도 학문의 깊이를 심화하고 외연을 확장한 시기였다. 동시에 이 시기는 자신의 학자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선학들의 타계하는 상심의 시간이기도 했다. 1553년에는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이언적의 부음에 뗏했고, 1554년에는 주세붕의 죽음을 애도했다. 1576년에 지은 ‘江界府晦齋先生祠堂記’는⁹⁾ 격려와 인도를 아끼지 않았던 선학에 대한 존모의 표시에 다름 아니었다.

한편 박승임은 40대 이후에는 院享論으로 대변되는 존현사업에도 열정을 쏟게 된다. 建院 및 院享論은 이황의 관심사였던 ‘서원보급운동’¹⁰⁾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師說’의 착실한 계승 및 적용의 과정이었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원향론은 紹修迎鳳[川谷]·伊山陶山·鼎山·沂川書院 등 영남을 비롯하여 근기지역을 포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박승임의 交遊論에서 주목할 것은 강우 南冥學派圈 인사들과의 관계이다. 『소고집』에는 이들과의 관계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교유의 실상은 강우지역 사림들의 기록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함양 濫溪書院의 창건 주역 姜翼(1523-1567)의 『介庵年譜』 기사인데, 여기에 박승임이 등장한다.

斯文을 흥기시키고 유교를 창명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하루는 朴君 承任, 徙庵 盧祿, 梅村 鄭復顯, 林希茂와 논의하기를, 우리 고을은 文獻公 一蠹 선생을 배출한 고을인데, 문헌공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50년이 지났지만 서원을 건립하고 사당을 세우는 일이 없으니, 이는 실로 우리 고을의 수치이다.¹¹⁾

8) 李滉, 『退溪集』 卷12,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丙辰:郡守安瑞卽文成公之後)>.

9) 朴承任, 『嘯臯集』 卷3, <江界府晦齋先生祠堂記>.

10) 李滉의 書院論에 대해서는 鄭萬祚, 「退溪 李滉의 書院論」(『朝鮮時代書院研究』, 집문당, 1997)년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남계서원은 鄭汝昌(1450-1504)의 주향처로 周世鵬이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을 건립한 지 10년, 1550년 이황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사액된 지 2년째 되던 1552년에 건립되기 시작한 초창기 서원이었다. 이후 남계서원은 徐九淵尹確·金宇弘 등 전현직 함양군수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고, 1561년 정여창의 위패를 봉안했다.¹²⁾

박승임이 남계서원 건립의 주역이었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물론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남계 건원의 주체 강익·서구연·김우홍(퇴계문인 金宇宏의 형)과 이황과의 관계성은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退溪 선생의 道德이 純粹하다는 것을 알고 늘 친히 훈도를 받아 교화를 입고자 했으나, 백형 진사공의 병환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¹³⁾

徐密陽(徐九淵)은 머리를 돌림이 비록 늦었지만, 독실하게 믿고 힘써 행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¹⁴⁾

이에 따르면, 남명문인 강익은 1557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려는 뜻을 가진 바 있었고, 관료 출신이었던 서구연은 중년 이후 이황의 영향을 받아 도학에 입문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승임의 남계서원 건립 참여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이황의 ‘서원보급운동’¹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박승임과 남명학과권 인사들의 교유는 1566년 진주목사 부임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李希顔·盧禎·李楨 등 조식의 핵심 從遊人들이 그와 교

11) 姜翼, 『介庵集』 「年譜」 <壬子>(1552) “以興起斯文 倡明儒教爲己任 一日 與朴君承任 盧徙庵裸鄭梅村復顯林君希茂 議曰 吾鄉乃文獻公之鄉 而文獻公之歿 已至五十年 尙無建院立祠之舉 實吾鄉之羞 諸君曰然 乃創立文獻公書院 是時也 我東方書院 惟周茂陵設竹溪之外 無有焉 見聞未熟 異議橫生 先生毅然不動 決意舉役”

12) 김학수, 「介庵 姜翼의 家系와 生涯」, 『介庵 姜翼』, 예문서원, 2017.

13) 姜翼, 『介庵集』 「年譜」 <丁巳>(1557).

14) 黃俊良, 『錦溪集』 外集 卷7, <答退溪先生書>.

15) 이황의 서원보급운동에 대해서는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참조.

유했던 인물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嘯臯集』에는 진주목사 재임 때 지은 여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축석루에서 李濟臣(陶丘)과 화답한 시이다. 이제신은 남명문화의 ‘奇人’으로 일컬어지는¹⁶⁾ 인물인데, 박승임은 그와 매우 돈독한 교계를 맺고 있었다.

‘축석루의 전별연에서 도구 이제신과 이별하면서 화답하여 주다’
 驛召詞臣集上都 역마로 사신들을 서울로 불러모아
 儲材應接信嘉謨 대기한 인재들이 응접하니 진실로 좋은 계책
 病夫枉被虛名誤 병골인 나도 허명으로 잘못 부름 입었으나
 楊散何曾繫有無¹⁷⁾ 쓸모없는 재능으로 참석한들 소용 있나

남명문인과의 교유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崔永慶(河沔) 이후 남명학파의 구심점으로 역할했던 河受一도 박승임이 구축했던 교육인프라의 수혜자였다. 하수일은 조식→하향으로 이어지는 覺齋門派의 계승자로서 그의 학통은 河弘度(1593-1666)에게 전수되어 17세기 남명학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하수일은 박승임과 밀접했던 趙穆과 함께 陶山書院을 심원하는 등 퇴계학파와의 친연성이 매우 깊었다. 후일 하홍도가 親退溪學派의 경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¹⁸⁾

家大人 正郎府君(河沔)을 모시고 覺峯齋에서 독서했다. 가정 丙寅年(1566)에 朴嘯臯 承任이 州牧으로 부임하여 四齋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는데, 이 때 정랑 공이 覺峯齋長이 되었으므로 선생이 모시고 간 것이다.¹⁹⁾

16) 李萬敷, 『息山集』 別集 卷2, 「地行錄」 <智異古事>.

17) 朴承任, 『嘯臯集』 卷2, <蘆石餞筵和答李陶丘贈別濟臣>.

18) 河沔·河受一·河弘度の 활동 및 친퇴계학파적 경향에 대해서는 김학수, 「士谷 마을의 인문환경: 시간·공간 그리고 인간」, 『남명학연구』 62, 2019.; 김학수, 「하동 安溪 마을의 인문 환경 -學術文化 인프라의 조성 및 경영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58, 2018. 참조.

19) 河受一, 『松亭集』 附錄 「年譜」 <丁卯>(1567).

진주목사 재임 때의 교학론은 남명문인 成汝信(1546-1632)의 기록에서 한 층 더 구체화 된다. 성여신은 治民과 敎化 두 측면에서 전범을 이루었던 박승임의 진주목사로서의 치적을 이렇게 증언한다.

공의 이름은 承任이고, 榮川 출신이다. 嘉靖 병인년(1566) 진주 목사가 되었다. 정사는 청렴하고 송사는 간결하며, 성품이 어질고 밝아서 백성들이 사랑하고 아전들이 두려워하였다. 진주 목사로서 있을 때 학문을 일으키고 文을 숭상하는 것으로써 임무를 삼아 학교를 설치하는 규정에 의하여 진주의 四面에 각각 서재를 개설하였는데 講堂, 書樓, 東齋, 西齋, 倉庫 등을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또 學田과 지키는 사람을 두어 士人들의 학문 닦는 곳으로 삼고, 생원 鄭斗河魏寶, 진사 俞伯溫으로 훈장을 삼아서 각 면의 書齋를 나누어 맡게 하였는데, 모두 진주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겨울과 봄에는 글을 읽고, 가을과 여름에는 과업을 익히게 하는 것으로 영구히 준수하여 행할 규칙으로 삼으니, 문학이 크게 성대해졌다. 自號는 嘯臯이다. 내가 또한 여러 번 나아가 의심난 것을 물어 깨달은 것이 많았다. 또 공의 아들은 이름이 濂이고, 자가 子澄인데, 함께 학문을 강마하였으며 도의로 사림이 매우 좋았다.²⁰⁾

성여신의 언급을 수용하자면, 박승임 16세기 중엽 진주지역 교육기반의 설계 및 후원자였고, 학문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서 경내 사자들의 학문을 이끈 교육자였던 것이다. 성여신은 그를 학식과 政畧을 겸한 ‘善治守令’의 전범으로 평가하고 사실상 ‘師’로 예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나아가 성여신은 박승임을 從學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 朴濂과도 돈독한 학연을 맺었는데, 아래의 시는 두 사람의 교계의 일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꿈에서 박자정과 대화하며’

夢見榮川朴子澄	꿈속에 영주의 박자정을 보았는데
儀容宛對舊情稱	그 모습은 완연하여 옛 우정 그대로였네
山川千里音書斷	산천은 천리 길이나 멀어 소식조차 끊어졌으니
一榻論文又豈能 ²¹⁾	한 책상에서 글을 논함이 어찌 또 가능하리

20) 成汝信, 『浮查集』 卷6, 「從遊諸賢錄」 <嘯臯朴公>.

이처럼 박승임은 퇴계학에 학문적 機軸을 두면서도 남명학 등 다른 갈래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박승임의 학문과 처세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III. 尊賢論 : 院享論과 退溪書院論의 계승

박승임이 학문활동에 못지 않게 중시했던 것은 ‘尊賢事業’이었다. 建院 및 院享論으로 압축되는 존현사업은 교학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敎育論’의 반영이었고, 李滉의 ‘서원보급운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師說의 계승 및 확산 과정이었다.

박승임이 추진했던 일련의 존현사업은 1558년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紹修書院의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되었지만 그는 이보다 한 해 전인 1557년에는 영천 臨臯書院을 심원했을만큼 존현의식은 강렬했고, 그 보폭은 넓었다.²¹⁾

풍기는 자신의 향리 영주의 인근 고을로 이황이 군수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백운동서원을 ‘紹修書院’으로 사액받아 서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 바 있다. 박승임의 풍기군수 부임은 이황 宦歷의 제도적 추종이 아니라 존현사업의 계승적 추진이라는 학파적 과제와 연동되어 있었다. 서원의 양대 기능을 尊賢과 養士라 할 때, 좌의정 安珪(1501-1560)에게 요청하여 ‘晦軒影幀’을 새로 그릴 것을 요청한 것은 존현의 표명이었고,²²⁾ 유생을 모아 강화한 것은 양사의 구체적 실천이었다.

① 대개 동방 道學의 唱導는 선생(安珪)이 곧 비조이고, 서원의 창설 또한 여기서

21) 成汝信, 『浮查集』 卷6, <夢與朴子澄話>.

22) 臨臯書院所藏, 『臨臯書院尋院錄』(1). 여기에 더해 <玉山書院尋院錄>(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玉山書院誌』, 1993)에 따르면, 박승임은 1574년에는 慶州府尹 자격으로 옥산서원을 심원하는 등 존현 행보를 지속했다.

23) 朴承任, 『嘯臯集』 卷3, <上左相安珪書>.

비롯되었으며, 사역하고 經典을 반질하는 것은 더욱 다른 곳에는 없던 바이다. 이제 또 화공에게 명하여 진모하게 하여 초상을 엄연히 일신하였으니, 국가에서 숭상하는 실체와 사론이 향모하는 정성이 여기에서 드러났다.²⁴⁾

- ② 고을에 소수서원이 있는데, 晦軒 安先生을 봉안했다. ... 회현은 도학을 창도한 분이기 때문에 선생이 더욱 높이 받들었다. 관아의 공무를 처리하고 여가가 있으면 늘 홀로 말을 타고 서원에 이르러 제생들과 講學하였다.²⁵⁾

나아가 그는 소수서원 유사를 대신하여 戶曹에 글을 올려 養士 재정의 국가적 관리 체계를 환기시키는²⁶⁾ 한편 院生들의 학업을 독려하며 교육이라는 서원 본연의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부신했다.²⁷⁾

이런 가운데 1560년(명종15)에는 성주 迎鳳書院[후일의 川谷書院]의 원향과 관련하여 성주목사 盧慶麟(1516-1568)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川谷書院은 1558년(명종13) 성주목사 노경린이 鄉人 呂忱의 협조를 받아²⁸⁾ 건립된 성주 최초의 서원이었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延鳳書院이었다. 당초 영봉서원은 李兆年·李仁復·金宏弼의 제향처로 건립되었으나 위 3인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 연치와 도학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야기되었다. 논란 끝에 성주이씨들은 安峰影堂을 별설하여 이조년과 이인복을 제향하게 되고 영봉서원은 程子·朱子·金宏弼의 제향처로 확정되었다. 이 때 도학 중심의 원향 기준을 제시한 사람은 이황이었다. 영봉서원은 1568년 정구가 이황에게 품의하여 ‘川谷書院’으로 개칭하게 된다.²⁹⁾ 노경린의 자문은 위차 논쟁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안점이 있었지만 박승임은 이황의 입론을 수용하여 조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³⁰⁾ ‘퇴계서원론’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유

24) 朴承任, 『嘯臯集』 卷3, <紹修書院畫像改修識>.

25) 朴承任, 『嘯臯集』 「年譜」 <戊午>(1558).

26) 朴承任, 『嘯臯集』 卷3, <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27) 朴承任, 『嘯臯集』 續集 卷4, <與白雲洞群彥書>.

28) 鄭述, 『寒岡集』 卷13, <忠武衛副司直呂公墓表>. 呂忱의 손자 呂煜·呂燦·呂焯은 寒岡門人이다.

29) 鄭述, 『寒岡集』 卷3, <上退溪李先生>.

지하였다.

한편 박승임은 예천 鼎山書院의 건립을 주창함으로써 한국서원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정산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그의 역할이 강조되지 못한 것은 ‘서원건립청원서[代人請立鼎山書院文]’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지은 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록 대작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는 尊賢養士論에 바탕한 그의 서원관이 잘 드러나 있다.³¹⁾ 물론 이 글이 정산서원 건립으로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紹修臨臯·伊山鳴鳳(迎鳳의 별칭)서원 건원 취지의 계승을 촉구했던 그의 청원은 임진왜란 이후 정산서원 건립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당초 정산서원은 尹祥(1373-1455)의 제향처로 건립되었으나 ‘佛教에 빠진 혐의(爲亡妻設齋之嫌)’가 있어 이황에 의해 입향이 거부되었다.³²⁾ 그 대안으로서 權五福의 제향론이 발론되었다. 그러나 주론자였던 權文海(1534-1591)가 사망한데다 戰亂(壬亂)까지 겹쳐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예천 사람들은 이황을 주벽으로 하여 權五福·趙穆을 중향하는 것으로 논의를 좁히게 되는데, 조목의 경우 이황의 고제로서 醴泉이 그의 본향이라는 것이 從享의 사유로 제시되었다.³³⁾ 그러나 이 또한 위차

30) 朴承任, 『嘯臯集』 卷3, <答星州牧使盧慶麟書>.

31) 박승임이 ‘鼎山書院建立請願書’의 대찬자가 된 것은 척연·학연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승임의 처가는 예천의 예천권씨였고, 퇴계문하의 동문 權文海는 처숙 權五福의 손자로 박승임과는 5촌의 척분이 있었다. 짐작컨대, 정산서원 창건론의 실질적 주체는 권문해였고, 제향 인물로는 權五福을 상정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예천권씨와 척분이 있고, 이황 서원론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뛰어난 문장력을 갖춘 인물로는 박승임이 적임이었던 것이다. 참고로 박승임은 권문해의 부탁을 받고 지은 ‘匪軒集序’에서 權五福을 강개한 절사의 풍도를 지닌 명현으로 칭송한 바 있다(朴承任, 『嘯臯集』 卷3, <匪軒集序>).

32) 李滉, 『退溪集』 卷34, <答金彥純明一士純> “醴泉書院祠尹公事 伯純來問 初漫依報及看其集 佞佛已甚 尊祀極未安 亟作書因便寄去 勸其姑勿建祠 只立書院不妨 未知彼中諸議以爲如何耳 倦草不宣”

33) 예천지역에는 鄭琢·權文海·金八元 등 다수의 퇴계문인이 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치고 조목의 從享論이 대두된 것에서도 광해연간 월천계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 예천지역의 퇴계학맥에 대해서는 황위주, 「醴泉地域의 退溪學脈」,

및 제향인물의 선정을 두고 논란을 빚자³⁴⁾ 鄭述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었다. 정구의 형 鄭崑壽(1538~1602)가 권오복의 종손서이고, 정구와 조목이 道友라는 것이 자문 요청의 표면적 사유였다.³⁵⁾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구의 학자적 권위를 빌어 이황·조목의 양대 원향 체계를 실현코자 했던 李光胤 등 조목 문인들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³⁶⁾

이에 대한 정구의 답변은 간명했다. 조목은 퇴계문하의 老門生으로 일생을 ‘篤信自守’했고, 舊業 또한 예천에 남아 있으므로 종향함이 마땅하고, 尹祥·權五福·權檣은 白鹿洞書院 5賢의 규례에 따라 別祠 또는 鄉射堂에 봉안할 것을 제안했다.³⁷⁾ 정구의 이러한 제안은 원향의 대상을 도학

『韓國의哲學』28, 2000, 참조.

- 34) 李光胤, 『漢西集』 卷5, <上鄭寒岡先生稟立祠書>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황의 사당에 趙穆을 祭享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권오복보다 후대 사람인 李滉이 주향이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 둘째, 이황은 이미 문묘에 종사되었으므로 權五福, 조목 및 權檣을 제향해야 한다는 주장, 셋째, 權檣은 명성이 현저하지 않고, 권오복은 절의는 높으나 도학자적 성격이 약하므로 尹祥과 더불어 鄉射堂에 제향해야 한다는 주장, 넷째, 조목의 경우 이황과 따로 제향되어서는 불가하다는 주장 등이다.
- 35) 李光胤, 『漢西集』 卷5, <上鄭寒岡先生稟立祠書> “竊惟先生仲氏西川相公 嘗贊爲睡軒從孫婿 先生又與月川爲昔者道義之友 知二賢行義心事 宜莫如先生 茲用裁書以稟冀承折衷之教”
- 36) 당시 원향론을 주론하며 정구에게 품의한 李光胤은 朴枝華의 문인으로서 화담학통을 이은 李得胤의 아우로 본래 청주 출신이었다. 17세 되던 1580년 합천이씨 李種茂의 딸과 혼인하면서 예천 金谷으로 이거하였고, 1582년 예안으로 가서 조목에게 『心經』, 『家禮』를 배우면서 그의 문인이 되었다.(李光胤, 『漢西集』 「年譜」 <壬午>(1582) “往禮安 受心經家禮于月川趙先生”). 이런 배경에서 그는 1612년 정산 원향론을 주도했고, 서원 상량문도 지었다.(李光胤, 『漢西集』 卷6, <鼎山書院上樑文>). 한편 이상필은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와우출판사, 2005, 144쪽)에서 이광윤을 정인홍 문인으로 파악하였다. 조목계와 정인홍계의 연대상, 이광윤의 삼가 龍巖書院(曹植 제향처) 심방(1616)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 3, 1993). 다만, 김응조는 이광윤 묘갈명에서 어떤 사승관계도 언급하지 않았다(金應祖, 『鶴沙集』 卷7, <漢西李公墓碣銘>).
- 37) 鄭述, 『寒岡集』 卷4, <答李克休光胤> “月川以先生老門生 篤信自守 老而不懈 舊業尙在本郡 奉祀侑享 保無異議 則如來示使之從祀 亦何至不可乎…睡軒同享 果有年代之嫌 而別洞又不可已焉 則傲白鹿之五賢 立二賢祠於院旁固宜 而或不便 則如來示祭於鄉射堂 又何不可乎 權正卽名雖未著 而操履實德 果爲可敬 則並享爲三賢 何妨”

적 기준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이황의 인식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후 박승임은 1573년 11월 영주 이산서원 ‘李滉奉安禮’ 주관했고,³⁸⁾ 1574년에는 예안으로 가서 퇴계문하 동문들과 陶山書院 건립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576년에는 강계에 있는 이언적 사당[景賢書院의 전신]의 기문을 찬술했고,³⁹⁾ 1579년에는 여주 沂川書院을 건립하여 金安國을 제향함으로써 6~7개 서원의 원향을 주론 또는 관여하는 자취를 남기게 된다. 그가 추진했던 건원 및 원향론은 조선 사림의 인문적 토대 확장에 주안점이 있었고, 그 기본 정신은 ‘이황서원론’의 착실한 계승이었다.

IV. 學問論 : 歷史認識과 歷史記述論

박승임의 학문과 관련하여 대비되는 두 표현은 ‘精簡論(또는精勤精妙論)’과 ‘寡知論’이다. 먼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의 ‘과지론’은 ‘애석론’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소고문인의 일반적 정서이다. 아래는 任屹(1557-1620)이 지은 ‘嘯臯行狀’과 金中淸이 지은 ‘祭嘯臯先生祠廟’인데 그 뉘앙스가 매우 흡사하다.

선생의 학문의 공은 얇은 口耳之學이 결코 아니거늘, 알아주는 사람이 적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적은 것이 한스러울 것은 없으나, 두 분 선생의 유고 안에 드

38) 朴承任, 『嘯臯集』 卷3, <伊山書院奉安退溪先生文>. 이 글에는 孔孟→程朱를 계승한 조선 유학의 宗主로서의 李滉의 학덕을 精深하면서도 자못 도도하게 표현했다. 伊山書院 입학생 명단인 『伊山入院錄』에 따르면, 1558년부터 1582년까지 서원 창립기의 院生 중에는 張壽禧·朴承倫·金玠·宋福基·南夢鰲·李弘濟·金農·權斗文·朴澍·宋福源·金允欽·秦宗吉·南致亨·張汝興·李鏊·金陶·金盖國·琴復古·金隆·張汝玠·朴澡·金正身·朴善長·李介立·李汝璠·金允誠·朴灝·金允思·金中淸 등 다수의 소고문인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16세기 영주지역 학풍을 소고문파가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伊山書院誌』 「伊山入院錄」).

39) 朴承任, 『嘯臯集』 卷3, <江界府晦齋先生祠堂記>. 이 사당은 후일 景賢書院으로 승격된다. 박승임에게 기문을 청한 사람은 熙川 출신의 이언적 문인 金玟과 이언적의 庶孫 李浚이다.

러난 글 한 구절 말 한 마디 전혀 없어 선생 덕업의 아름다움이 민멸되어 전해지지 못한 것이 우리 문하가 매우 유감스럽고, 또 애통하게 여기는 이유이다.⁴⁰⁾

선생과 같은 문장, 선생과 같은 학문, 선생과 같은 器度로도 생전에는 벼슬이 通政에 그쳤고, 사후에는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하니, 아 슬프도다.⁴¹⁾

반면 鄭經世(1563-1633)는 ‘嘯臯墓碣銘’에서 박승임에 대한 경모심을 드러내는 주저함이 없다.

경세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敎官 田公(田克禮)에게 『漢書』를 배웠는데, 글을 읽고 남는 시간에는 故 대사간 嘯臯公의 일에 대해 싫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말해 주었다. 그 말에 이르기를, ‘外舅의 사람됨은 깊숙하고 고요하였으며 담박하고 활달하였다. 사물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바가 없었고 오직 서책만을 좋아하였는데, 마치 嗜慾에서 좋아하듯이 하여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무릇 책을 사다가 혹 임금이 宣賜한 것을 얻으면 문득 붓을 잡고 점과 구를 찍으면서 일일이 대조해 보았으며, 비록 『儀禮』나 『綱目』이나 『朱子大全』이나 『朱子語類』 등과 같이 권질이 아주 많은 책이더라도 불과 몇십 일 만에 읽기를 마쳤다.’ 하였다. 전공은 평소에 구차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서는 흠모하면서 부러워하였으며, 거듭해서 선배들이 힘을 쏟는 정밀함과 부지런함은 후학들이 미칠 바가 아님에 감탄하였다.⁴²⁾

비록 田克禮를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정경세는 박승임을 沈靜·好學의 자품에다 精勤함까지 겸한 석학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경세의 ‘嘯臯稱頌論’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직접 경험에 바탕한 것이었기에 그 표현이 더욱 사실적이며, 精簡한 大儒의 문하에서 수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숨기지 않는다.

40) 朴承任, 『嘯臯集』 附錄(上) <行狀>(任屹) “先生學問之功 固非口耳之淺淺 而知之者寡 雖然 知之之寡 似不足深恨 而於兩先生遺稿之編 絕無隻句片言之著焉 則先生德業之美 泯乎其無傳 而吾黨之憾且慟之者 尤有甚於斯”

41) 金中淸, 『苟全集』 卷6, <祭嘯臯先生祠廟>.

42) 鄭經世, 『愚伏集』 卷18,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兼知製敎朴公墓碣銘并序>.

그 뒤에 故 學諭 金天英과 『易學啓蒙』에 나오는 當基章을 논하면서 어려운 책을 아주 쉽사리 읽고 산가지를 놓을 때 더하고 빼는 것이 손과 입이 서로 응하여 법 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내력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일찍이 嘯臯 선생께 배웠는데, 선생은 이에 대해서 대개 이른바 정통하면서 묘리를 깨달은 분이다’고 했다. 이에 나는 더욱 더 공이 簡編에 온 심력을 쏟은 것이 詞章과 記覽에만 오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미처 공의 문하에 나가 보지 못한 것을 평생의 불행으로 생각하였다.⁴³⁾

당대의 실상에 비해 후대로 갈수록 박승임의 학자적 위상의 질하 현상이 초래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하겠지만 우선 저술의 유실이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박승임의 저술은 『소고집』 외에 『孔門心法』, 『綱目心法』, 『儀禮講錄』, 『性理類選』, 『嘯臯日記』가 있고, 朴希天은 ‘嘯臯先生續集識’에서 『四禮辨解』 두 책을 찬찬하였다고 적고 있다. 저술의 면면에서 학문의 호한함을 읽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嘯臯道學’의 요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공문심법』과 『의례강록』은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그간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강목심법』을 찾은 것은 박승임의 학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⁴⁴⁾

박승임의 학문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사우·문인 및 후대의 기록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는 함께 관료생활을 했던 李濟臣과 문인 琴復古의 記述 및 ‘溪門弟子錄’에 수록된 내용이다.

성현의 性理書와 星位學에 대해 융화·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義易과 논어, 程朱의 글에 대해서는 더욱 힘을 다해 정밀하게 살폈고, 침잠하여 반복했다. ([李濟臣의 기술])

선생은 성리에 침잠하고 오묘함을 연구하여 天行의 굳건함과 산수의 오묘함에 대해서도 또한 모두 원히 꿰뚫었으며,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침식을 잊을 지경이

43) 鄭經世, 『愚伏集』 卷18,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兼知製教朴公墓碣銘并序>.

44) 『綱目心法』은 2014년 소수박물관에서 국역하여 학술총서 14집으로 발간한 바 있다 (소수박물관, 『국역강목심법』, 2014).

었다. 벼슬살이 할 때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반드시 역을 읽었다.([琴復古의 기술])

성리학에 침잠하여 전심 강구하였으며, 성위와 산수에 있어서도 또한 정밀하고 익숙하게 理會하지 않음이 없었다. 특히 논어, 역학, 예경 및 주자서에 힘을 쏟아 반복 궁구하여 퇴계에게 질정하였는데, 크게 인정을 받았다.([溪門諸子錄의 기술])

성리학을 근본으로 天文學·曆數法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정심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히 그가 중시했던 텍스트는 『주역』과 『논어』였다.

박승임의 공부론은 精慮·沈潛·玩味에 본령이 있었고, 師友講明을 통한 인성 함양과 학문의 진보를 더없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은 主試官이 되었을 때 策題로 출제할만큼 긴요했고, 이는 그의 학문이 시대와 소통하는 실용학으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에게는 詩조차도 彫琢의 문예를 넘어 교화의 핵심 매체로 작동하고 있었다.⁴⁵⁾

인성은 선하지만 기질에 구애되고 욕심에 가려지니 도를 닦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에 마련되었다. 학교를 설립하여 밝히는 것은 인륜이고, 기르는 것은 영재였으니, 이것은 성인께서 군사로써의 직분을 다한 것으로 규모와 절목이 넓으면서도 자제한 것이다. ... 인륜의 講明은 師友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선비라는 자들은 거의 장유의 차례를 어기고 봉우의 신의가 없어서 汙下하게 되는 것을 달게 여기고 부끄러워 할줄을 모른다.⁴⁶⁾

사람의 대륜은 다섯가지가 있는데, 봉우가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한다. ... 사람마다 友德의 의리를 알게 하고 선비마다 보인의 유익함을 얻게 하여 하늘이 부여한 신의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 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군자들은 절차하고 탁마하는 여가에 憤世하고 嫉邪함이 지극하여 더러움을 혁신할 방도를 밝히고 인륜을 밝힐 학문을 궁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기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⁴⁷⁾

45) 朴承任, 『嘯臯集』 卷3, <風騷選序>.

46) 朴承任, 『嘯臯集』 卷3, <榮川鄉校重修記>.

47) 朴承任, 『嘯臯集』 卷3, <策問(二)>.

이런 맥락에서 박승임은 지행의 문제에 집착한다. 그는 배움의 궁극적 지향은 실천에 있다고 인식했고, 과장의 거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질문으로 던졌다. 그는 지금 도학의 현실적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질문은 냉철했고,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의 ‘知行觀’이 함축되어 있었다. 첫째, ‘知’와 ‘行’의 학문과의 연관성과 선후관계, 둘째, 고인의 가르침에 따라 지행합일을 실천한 사례의 제시, 셋째, 公利의 습속으로부터 벗어나 학문이 실천에 바탕하여 현실의 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그가 출제한 책제의 골자였다.⁴⁸⁾ 결국 박승임이 추구했던 학문은 진정성에 바탕하여 세상과 유리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박승임의 학문을 ‘口耳之學’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임흥의 주장은 실체를 꿰뚫어 본 實語가 된다.

한편 박승임은 1540년 사마 양시를 거쳐 문과에 합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역사기술[史記]’에 관한 策題와 마주하게 된다. 당시의 답안인 시권이 『소고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24세 청년 선비의 답안으로 믿기지 않을만큼 식견은 풍부했고, 판단은 예리했다. 이 때 드러난 그의 역사의식은 이후 학문하는 과정에서 더욱 熟成精鍊되었으며, 『강목심법』의 편찬은 그런 공부의 결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할 답안 [對策]은 『강목심법』의 지향을 읽을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박승임에게 주어진 질문은 크게 춘추가 난신적자로 하여금 복잡하게 할 수 있었던 까닭, 司馬光의 『資治通鑑』과 朱子の 『資治通鑑綱目』[『通鑑綱目』·『綱目』]의 상호 우열과 동이점, 韓愈와 柳宗元 사이의 역사 인식의 시비, 史官 효용론, 조선 史官制度의 한계, 엄정한 역사 서술을 위한 바람직한 사관의 발굴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⁴⁹⁾

이에 대한 박승임의 대답은 명백·직절했다. ‘科擧文字’라기보다는 역사 강론을 방불케할만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철했고, 대안 또한 분명했다. 우선 그는 사관의 양대 조건을 ‘재주의 넉넉함[才之贍]’과 ‘도의

48) 朴承任, 『嘯臯集』 卷3, <策問(一)>.

49) 朴承任, 『嘯臯集』 續集 卷4, 「史記」 <對>.

곧음[道之直]’이라고 할 때, ‘道는 재주의 근본이고, 재주는 도의 발용’이라는 관점에서 후자를 더욱 강조한다. 사관의 직분은 본래 넉넉한 재주를 귀하게 여기지만, 사관의 절조는 도가 곧은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史官論’의 핵심이다. 그는 재주와 도의 경중이 전도되었을 경우를 ‘雕繪粉飾論’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도가 곧지 못하면서 오직 재주의 넉넉함을 믿는다면 이는 화공이 雕繪하고 粉飾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치의 전말과 사적의 시종에 있어서도 오히려 박잡하고 꺾락한 잘못을 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시비와 억양의 鑑裁와 權衡이 그 진상이 드러나고 그 실상을 민멸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관이 된 자는 재주가 없어서는 안되지만 재주가 있더라도 그 도를 곧게 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⁵⁰⁾

박승임은 ‘才道論’에 입각하여 『史記』의 저자 司馬遷과 『漢書』 저자 班固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퍼붓는다. 司馬遷은 도가 곧지 못하고, 반고는 재주에 매몰된 자라는 것이 비판론의 요지이다. 사가로서의 두가지 전제 조건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

六經을 뒤로 하고, 黃老를 앞세우며, 간용을 진용하고, 처사를 물리친 것은 사마천이 도에 곧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절의를 배격하고 정직을 왜곡하면서 살신성인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반고가 한갓 재주만 있는 자라서 그런 것입니다.⁵¹⁾

사마천·반고를 향한 비판론과는 달리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에 대해서는 역사서술의 규범을 세운 인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周와 漢을 경시했던 태도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자치통감』이 찬술되어 한 편의 책에 천고의 역사를 통괄하였으니, 진실로 아

50) 朴承任, 『嘯臯集』續集 卷4, 「史記」〈對〉.

51) 朴承任, 『嘯臯集』續集 卷4, 「史記」〈對〉.

름다운 규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주나라를 끊어버리고 속히 진나라로 나아가고, 가벼이 한나라를 탈취하여 편중되게 위나라에 주었으며, 周紀가 唐經을 어지럽혔는데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⁵²⁾

『자치통감』에 대한 온건 비판론적 평가는 ‘사마광이 재주는 盡美했으나 도는 盡善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결국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의 수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승임에게는 역사서술도 道學의 영역 속에 포괄되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 그는 철저한 주자학자인 동시에 ‘주자학’의 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16세기 조선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주의 綱常과 統紀의 차제를 바로잡아서 대륜을 밝히고 群蒙을 개도하였던 『資治通鑑綱目』과 비교할 때 어찌 우열과 동이의 구분이 없겠습니까? 대개 속수(涑水:司馬光)는 재주는 진미하나 도는 진선하지 못하였는데, 紫陽(朱子)은 이미 도에 깊었으므로 재주를 걱정하지 않았던 분입니다.⁵³⁾

박승임은 관서와 관원의 합당성을 유지한 조선의 역사 기술 및 편찬 체제에 대해 호평을 가한다. 특히, 검직 사관 제도는 부족한 바를 보완하게 한 ‘良法’이자 ‘美意’로 극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본의가 그렇고, 過去에 제도를 준용했을 때의 양상일 뿐 자신이 살고 있는 16세기 중엽 조선의 실상은 그 본의와 사뭇 다르다고 진단한다. 우선 그는 사실대로 쓰고 숨기지 않는 전통이 사라진 것에 개탄한다. 이것은 도가 곧음을 지키지 못하고, 재주가 넉넉한 사람을 얻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施政의 득실을 기록하고 作爲의 當否를 쓰면서, 혹은 그 진상을 손상시키는 것을 면치 못하고 혹은 그 사실을 다할 수 없으니, 이는 사관의 도가 그 곧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땅히 살려야 할 政敎號令과 마땅히 기록하여야 할 群

52) 朴承任, 『嘯臯集』續集 卷4, 「史記」〈對〉.

53) 朴承任, 『嘯臯集』續集 卷4, 「史記」〈對〉.

議와 衆論을 머리만 들고 꼬리는 들지 않으며, 하나만 걸고 둘은 누락시키며 심지어 俚諺까지도 섞어 넣으니, 이는 사관의 재주가 넉넉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⁵⁴⁾

‘역사기술[史記]’에 있어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주자학적 사론의 적용이다. 『春秋』를 표준으로 삼고 諸儒, 즉 사마광 및 주자학 계통의 학자가 고안한 법도의 준용을 제안한다. 『사기』나 『한서』는 사기를 돋우는 참조 자료일 뿐 본령으로 여기지 않는다.

文德을 펴고 학술을 밝히고 師儒를 가려 뽑고 권리를 부지런히 하면서, 『春秋』에 근본하여 그 표준을 세우고 사마천과 반고를 참조하여 그 사기를 돕되, 諸儒의 법도 안에서 집착하고 함영하게 만든다면, (곧은 도가) 없던 자가 있게 되고, (재주가) 넉넉하지 못한 자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⁵⁵⁾

이렇듯 그는 『春秋』(孔子) ⇨ 『資治通鑑』(司馬光) ⇨ 『資治通鑑綱目』(朱熹)을 편사의 肯綮으로 제시하며 이것의 수용을 설파한다. 이렇게 할 때 ‘才의 충족’과 ‘道の 확립’이라는 史家の 필요·충분 조건은 완비될 수 있고, 조선의 역사서술 또한 이런 정신을 수용할 때 바르고 곧아질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강목심법』 讀法の 요체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론을 요한다.

임흥은 ‘소고행장’에서 구체적인 저작을 거론하며 박승임의 학문을 아래와 같이 집약하여 서술한 바 있다.

우리 유가의 학문에 대해서는 비록 일찍 접하였지만 만년에 이르러 더욱 독실하게 좋아하고 즐겼다. ‘牛山箴’을 지었으며, ‘毋自欺賦’를 읊으셨다. ‘無極’, ‘夜氣’, ‘三戒’, ‘不憂貧’과 같은 작품들은 모두 이치를 탐구하고 敬을 보존하는 공부와 자신을 다스리고 도를 중히 여기는 大旨를 담았다. ‘誠’이라는 한 편에는 특히 경철함을 더하여, 엄하게 스스로 힘쓰고 신칙하기를 정녕하게 하셨고, 스스로 속이고

54) 朴承任, 『嘯臯集』續集 卷4, 「史記」〈對〉.

55) 朴承任, 『嘯臯集』續集 卷4, 「史記」〈對〉.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戒懼하였으며, 끝에서는 心上의 천지를 닦고 한거할 때의 시정을 경계하였으니, 만약 明誠한 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처럼 정성스러울 수 있을 것인가?

오랜 기간 동안 지근한 거리에서 스승의 언행과 학문을 지켜 본 고제의 서술이란 점에서 자못 신뢰할만하다. 이것이 任屹이 이른바 ‘明誠君子’로서의 박승임의 학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性理類選』⁵⁶⁾을 비롯하여 ‘牛山箴’·‘毋自欺賦’·‘無極’·‘夜氣’·‘三戒’·‘不憂貧’과 같은 저술 및 작품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이다.

V. 學脈論 : 嘯臯學脈 : 嘯臯門派와 16세기 榮州의 ‘集團知性’

1. 嘯臯門派의 형성

박승임의 제자 명단을 수록한 「嘯臯門人錄」에 따르면,⁵⁷⁾ 박승임의 문하를 출입한 인물은 총 52명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영주를 중심으로 풍기·예천·봉화·안동·예안 등 경상도 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영주의 비중이 단연 압도적이다.⁵⁸⁾ 박승임과 소문문파를 16세기 영주지역의 ‘集團知性’으로 일컬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6) 이 책은 2005년 소고선생기념사업회에서 국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국역성리유선』(상)(하), 소고선생기념사업회, 2005)

57) 朴承任, 『嘯臯集』附錄, 「門人錄」.

58) 위에서 언급한 지역 외의 문인으로는 상주 출신으로 정경세와 활발한 학문 담론을 펼친 金天英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표1> 16-17세기 영남학파의 주요 문파⁵⁹⁾

구분	문인수	전거	비고
退溪門人	309	『陶山及門諸賢錄』	『退溪全書』
南冥門人	30	『山海師友淵源錄』	朴綱(編)
來庵門人	115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李相弼(著)
月川門人	19	『月川先生門人錄』	光山金氏 後彫堂 所藏
西厓門人	117	『西厓先生門賢錄』	『西厓全書』
鶴峯門人	40	『鶴峯先生門人錄』	金龍洙(編)
芝山門人	94	『芝山先生師友錄』	道岑書院 所藏本
旅軒門人	355	『旅軒先生及門錄』 (丙辰本: 1916)	單行本(木版本)
		『旅軒先生及門諸賢錄』 (己未本: 1919)	『旅軒全書』
愚伏門人	107	『愚伏門人錄』	『愚伏先祖別集營刊時文蹟』
敬堂門人	221	『敬堂先生及門諸賢錄』	『敬堂集』別集
嘯阜門人	52	『嘯阜門人錄』	『嘯阜集』

물론 소고문인은 퇴계·월천·서애문인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퇴계문인과 겹치는 인물은 金玢·南夢鰲·李中立·金隆·宋福基·金允欽, 월천문하를 동시에 출입한 인물로는 任屹·金中淸, 서애문인이기도 한 인물은 金允思·金允安 등이 있다.

<표2> 영남학파의 주요 학맥과 영주풍기사림

구분	문인수	전거	영주풍기지역 문인
退溪門人	309	『陶山及門諸賢錄』	金玢, 朴櫟, 金隆, 宋福基, 閔應祺, 南夢鰲, 朴承任, 文命凱, 張謹, 張壽禧, 孫興慶, 吳濤, 郭瀚(이하 豐基), 黃俊良, 黃應奎, 李善承
月川門人	22	『月川先生門人錄』 (光山金氏 後彫堂 藏本)	

59)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40, 2010.에서 재인용.

西厓門人	117	「西厓先生門賢錄」	郭山晉, 金榮祖, 吳汝機, 金昌祖, 金慶祖, 金延祖, 金應祖
寒岡門人	342	「檜淵及門錄」	朴檜茂, 裴尙益
旅軒門人	355	『旅軒先生及門錄』	金友益, 金應祖
		「旅軒先生及門諸賢錄」	
愚伏門人	107	「愚伏門人錄」	金應祖, 權垕, 權省吾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상사 연구, 특히 영남학과 연구에서 박승임의 ‘소고문파’는 영남학통의 주요 갈래로 거론되지 못했다. 하지만 52명에 이르는 문하의 규모는 퇴계학의 4대문파[月川·鶴峯·西厓·寒岡門派] 가운데 월천·학봉문파를 상회하는 점, 주요 문인인 金功·南夢鰲·金隆·裴應裴·任屹·金中淸 등의 학문적 성취 및 위상은 ‘嘯臯門派’ 또한 영남학통[退溪學統]의 주요 문파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박승임이 師道를 표방하고 강학활동을 전개한 것은 45세 때인 1561년 무렵이다. 물론 박승임은 30대 중후반에 이미 현풍 등지의 士子들을 대상으로 강학하였지만 이것은 수령칠사의 하나인 興學을 위한 공무 수행의 성격이 컸다. 또 39세 때인 1555년에는 영주 유생들이 濟民樓에서 독서한다는 소식을 듣고 물품 지원과 함께 면려의 詩를 보낸 바도 있지만⁶⁰⁾ 후진양성 활동이 본격화 된 것은 40대 중반이었다.

「嘯臯年譜」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소고문하에 가장 먼저 입문한 인물은 宋福基였다. 이후 金蓋國·金隆 등의 請學 활동이 이어지면서 소고문하는 인적 증가를 기하며 그 외연을 점차 확대하게 된다. 박승임은 ‘四書本源論’에 바탕하여 門路와 階梯의 정립을 강조하며 문인들을 이끌었다.⁶¹⁾

60) 朴承任, 『嘯臯集』 卷1, <寄濟民樓文會諸友> “江樓高敞樹陰中 多士同勤琢玉功 古簡披來當檻雨 新詩吟罷滿襟風 徒溟要擊搏鵬水 對奕休彎射鵠弓 久擬一遊窺盛業 十年誰記雪泥鴻”

61) 퇴계학파에서 四書 등 經學工夫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은 류성룡이었다.

1561년. 송복기와 함께 『家禮』를 강했다. 송공이 와서 질의를 청했다.⁶²⁾

1563년. 김개국이 대학을 가르쳐주기를 청했다. 김공이 『계몽』을 배우기를 청하니, 선생께서 경계하며 말하기를, ‘학문에 뜻을 두었으면 마땅히 침묵으로 몸가짐을 해야 하고, 또한 四書を 먼저 익혀야 한다. 어찌 하여 이 책을 먼저 배우려 하는가? 이는 단지 蠶等의 큰 병폐가 되는 것이다’ 하고 『大學』을 배우라고 명하였다.⁶³⁾

박승임의 강학활동은 저술을 통한 자신의 학문적 온축과 그 궤를 같이하였는데, 이것은 ‘先學後敎’, ‘敎學竝進’의 자세로 규정할 수 있다. 박승임은 40대에 접어들면서 저술 및 간행활동이 왕성해졌다. 1556년 ‘天文圖’를 완성으로 시작된 저술 및 간행활동은 1563년 『性理大全』의 분류, 1564년 ‘風騷選序’의 찬술, 1571년 『家禮要約』의 간행, 1572년 『聖學十圖·戊辰封事』의 간행, 1580년 ‘太極圖’ 및 ‘入道說’의 완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후학들을 위한 학문적 기반의 확충, 퇴계학의 계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승임에 대한 이항의 기대는 ‘師道相敬’으로 나타났다. 즉, 이항은 일부 문생들을 박승임에게 보내 수학케 했는데, 이러한 비상한 조처는 박승임의 학행에 대한 강한 신뢰에 바탕한다. 박승임 또한 일부 문생들에게 퇴계문하 수학을 권유한다. 소고⇨퇴계문하로의 이행은 퇴계학이라는 구도 속에서의 ‘進學’을 뜻했다. 동시에 이것은 소고문파가 퇴계학과 유지 및 확장에 있어 견실한 하부 구조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선생께서 일찍이 퇴계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였으나, 퇴계 선생 또한 어떤 이에게는 선생 문하에 가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명하셨고, 선생 또한 일찍이 퇴계 선생

류성룡은 사서 중에서도 大學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런 인식은 西厓家學은 물론 屏山書院의 學風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の 學風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55, 2014 ; 「공간을 통해 본 18세기 西厓家學의 계승양상」, 『서애 학맥의 역사와 공간』(연세대학교 서애학술연구단 편), 선인, 2017.

62) 朴承任, 『嘯臯集』附錄, 「年譜」〈辛酉〉(1561).

63) 朴承任, 『嘯臯集』附錄, 「年譜」〈癸亥〉(1563).

에게 제자를 보내 시비의 바름을 질정받게 하였으니, 역시 두 선생의 道가 같고 뜻도 서로 같아 師道로 존중한 것을 볼 수 있다.⁶⁴⁾

이황이 ‘소고문하’ 수학을 권유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박승임이 ‘퇴계문하’로 보낸 인물의 대략의 윤곽은 잡을 수 있다. 1551년과 1565년에 퇴계문하에 입문한 朴承倫과 金隆(1549-1593)이 그들이다.

1551년 10월, 일곱째 아우 東園公(承倫)을 퇴계 선생께 보내 수학케 했다.⁶⁵⁾

1565년 10월, 金道盛 隆을 퇴계선생께 보내 수학케 했다. 김공은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업하였다. 당시에 서울 집에 데리고 있다가 퇴계선생에게 가서 수업하게 했다⁶⁶⁾

재행이 특출했던 박승륜은 이황으로부터 ‘清白傳家’ 네 글자를 받는 영광을 누렸고,⁶⁷⁾ 김릉은 소고문하의 애제자라는 점에서 그의 퇴계문하 진학은 그 의미가 특별했다. 그 특별한 마음을 담은 아래의 시에서 박승임이 김릉에게 기대했던 것은 면학을 통해 ‘溪門高弟’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김생 도성을 전송하며’

花雨濛春市	꽃비가 봄 저자에 부슬부슬 내리고
松風沸晚岡	솔바람은 저문 언덕에 불어오네
歸心雲共遠	돌아가고픈 마음은 구름과 함께 멀어지고
離恨水爭長	이별의 한은 물길 따라 흘러가네
十五男兒志	사나이 십오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三千弟子行	삼천 제자의 대열에 들어야 하는 법

64) 朴承任, 『嘯臯集』 附錄, 「門人錄」 <跋>(金若鍊). 김약련은 嘯臯門下의 수문 金玠의 7세손이다.

65)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辛亥>(1551).

66)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乙丑>(1565).

67)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辛亥>(1551).

指南效路直 도를 가리키는 길 바르게 있으니
鞭策莫棲遑⁶⁸⁾ 머뭇거리지 말고 채찍질하여 달리게나

한편 박승임은 퇴계학을 본령으로 하면서도 학문 및 교유의 범주는 이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래 소고문하의 선진 南復古의 기록은 京鄕을 아울렀던 박승임의 학자적 위상을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조정에 있을 때는 洛中의 인사들이 책을 끼고 문생의 반열에 있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비록 고관들도 모두 제자의 예를 행했다. 하향했을 때는 인근의 노소가 항상 문하에 가득 차서 배웠으며, 심지어 이웃에까지 신발이 가득 차게 읽었으니, 아! 성대하도다. 剛州(榮州)의 온 고을에 絃誦하는 소리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귀와 눈으로 짐작 보고 듣고 기억하는 바이다. 가호마다 禮讓과 講磨가 그치지 않았으니, 참으로 우리 영주를 鄒魯之鄕이라 한 것은 빈 말이 아니었다.⁶⁹⁾

사실 박승임은 ‘靑年得名’이라 할만큼 젊은 나이에 그 명성이 조야에 알려졌다. 28세 때인 1544년의 ‘湖堂參選’은 엘리트 문신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디딤돌이 되었다. 대제학 金安國·蘇世讓·成世昌의 주관했던 1544년(중종39)의 ‘湖堂錄’에는 李滉·洪暹·鄭惟吉·柳希春·金麟厚·盧守愼·朴忠元·趙士秀·任說·金祺·丁應斗·宋麒壽·吳祥·李承孝·林亨秀·南應龍·尹仁恕·尹鉉·李洪男·李湛·閔箕·金澍·閔起文·尹希聖·李元祿 등 총26명이 선발되었다.⁷⁰⁾ 당시 박승임을 비롯하여 정유길·이황·유희춘·김인후·노수신 등을 추천한 사람은 아버지 成僈를 이어 조선의 文柄을 잡았던 成世昌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호당은 ‘엘리트문신 육성프로그램’이었고, 박승임은 28세의 나이로 선발된 것이다. 이황·김인후·송기수·유희춘·정유길·노수신 등 당대 조선의 학계와 문단을 주도하던 인사들과 함께 선발되었다는 것은 당시 박승임이 접했던 문학적 소양과 관료적 위상의 가늠자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점차 ‘小退溪’로 일컬어지게 된다. 이런 평가는

68) 朴承任, 『嘯阜集』 卷2, <送金生道盛還鄕隆>.

69) 朴承任, 『嘯阜集』 附錄 下, 「記聞錄」 <門人松陰琴復古筆說>.

70) 朴承任, 『嘯阜集』 附錄, 「年譜」 <湖堂同選案>.

남명학풍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서인을 표방했던 李濟臣(1536-1584)의⁷¹⁾ 언급에 바탕하고 있어 윤색의 여지는 크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문하에 배움을 청하는 선비가 사방에서 운집하여 거처하는 곳마다 신발이 가득 찼다. 각기 그 사람의 재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성스럽게 가르쳐서 인재를 성취시키는데 지극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가히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할만하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우리 동방의 小退溪’라 일컬었다.⁷²⁾

‘小退溪’라는 별칭에는 ‘退溪學의 올곧은 계승자’이라는 학문적 신뢰가 투영되어 있었고, 조야가 공인했던 그런 신뢰는 박승임이 師道를 표방하며 門戶를 형성하는 원동력이었다.

40대 중반부터 전개되어 왔던 후학양성론은 1570년 12월 이황의 사망과 함께 탄력을 받았다. 특히 그의 만년 강학처인 夏寒亭은 ‘嘯臯門派’의 본산이라 할만큼 후진양성에 열정을 쏟은 곳이었다.

夏寒亭에서 儀禮經傳을 읽었다. 정자는 고을 남쪽 蟠谷에 있다. 아들 漉이 건립했고, 선생이 이름을 붙였다. 선생이 東里는 官府와 가까워 퇴임하여 講業하는 장소로 적당치 않은 곳이라 여겼다. 만년에 자주 이곳에 머물렀으며, 호를 ‘蟠谷病痛’이라 했다.⁷³⁾

이 무렵 박승임이 주안점을 두었던 교육론은 1579년 아들 朴漉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 그 일단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당시 관동을 유람하던 박승임은 아들에게 학업을 면려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辭義가 매우 준엄하다.

71) 李濟臣은 남명문인록인 <德川師友淵源錄>에 등재되어 있고, 아들 李命俊은 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선조의 遺敎七臣의 한 사람인 申欽은 이제신의 사위이고, 신희의 외손자가 소론의 영수 朴世采이다. 朴世堂의 고제였던 李德壽은 이제신의 7세손이다.

72) 朴承任, 『嘯臯集』 附錄 下, 「記聞錄」 <李清江濟臣漫錄>.

73)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癸酉>(1573).

초학자의 공부는 『心經』보다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비록 배움에 뜻이 있더라도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어정어정 세월을 보내게 되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지 못할까 두렵다. 모름지기 뜻이 독실한 이와 함께 책례를 짚어지고 절로 들어가 심분 생각하여 나의 소망을 저버리는 일리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⁷⁴⁾

여기서 박승임이 강조하는 핵심어는 ‘『心經』’, ‘篤實’, ‘靜思’ 그리고 ‘倚樣의 배격’이다. 이 가르침은 사림 교학론의 모범에 손색이 없고, ‘嘯臯學風’의 宗旨라 할 수 있다.

64세 되던 1580년(선조13) 11월, 박승임은 문인들과 함께 蓮花山 아래 凝石寺를 유람하고 시문을 唱酬하며 휴식을 취하게 된다. 驪州牧使에서 사직한 직후였다. 이 모임에는 金玢·權斗文·李弘濟·秦宗吉·南致亨·金蓋國·金隆·李介立 등의 소고문인과⁷⁵⁾ 朴灝·朴檜茂 등 자손들도 참여하여 성사를 이루었다. 이때 사제간에 주고받은 시문은 ‘凝石寺唱酬錄’⁷⁶⁾으로 묶여 문하의 美事로 남았다. ‘응석사회동’의 형식은 詩文을 주고받고 情談을 나누는 일종의 ‘文化行事’였지만 그 실질은 ‘嘯臯門派’의 성립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였다. 박록은 ‘응석사회동’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580년 가을, 선부군계서 여주목사를 사직하고 정신을 수양하려고 蟠谷의 집에 거처하신 지 오래지 않아 겨울이 될 무렵 문하의 학도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르침을 받기를 청했다. 선군계서는 절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근처에 있는 凝石寺가 중창되어 매우 정결했다. ... 이날 눈은 개이고 바람은 잔잔한데 鶴駕山은 화장을 한 듯하고 청량산의 이마가 보이는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서로 술을 권하였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춤을 추면서

74) 朴承任, 『嘯臯集』 附錄, 「年譜」 <己卯>(1579).

75) 박록이 찬한 ‘凝石寺唱酬錄’의 後識에 따르면, 소고문하의 선진그룹인 南夢鰲·宋福基·宋福源·金陶가 불참한 것은 出他·居喪·治病 때문이라 한다.

76) ‘凝石寺唱酬錄’에는 박승임을 비롯하여 禹世臣·張壽禧·金玢·權斗文·李弘濟·秦宗吉·南致亨·張汝興·李奎·金蓋國·張汝次·安慶禧·宋潛·琴復古·金鳴盛·黃彥柱·金元亮·金隆·朴灝·金正身 등 21명의 시와 追次한 金農·李介立·李尙彦·朴檜茂·權子金·應祖 등 총 27명의 詩가 수록되어 있다.

즐겼다. ...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성대한 모임의 융성함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 어찌 다시 얻게 되었는가?⁷⁷⁾

박목의 기술처럼 ‘응석사회동’은 학문적 수수를 골자로 하는 ‘師弟會同’이었고, 굳이 ‘淸涼山’을 언급한 것은 그 統緒가 퇴계학에 닿고 있음을 강변한다. 여기에 더해 김응조는 ‘凝石寺酬唱錄跋’에서 ‘凝石寺會同’을 紫陽(朱子) 門下의 ‘南嶽故事’에 비겨 학술성을 한층 고양시키게 된다.

옛날 紫陽 朱夫子께서 南嶽에서 놀 때, 당시의 문하 제자들이 모두 따라가 함께 수창한 시편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성대하기가 마치 전날 있었던 일과 같다. 대개 천하의 어진 스승이 천하의 훌륭한 제자들을 데리고 놀면서 수창한 것치고 바른 性情에서 나와 순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 기이한 경치만을 탐방하면서 풍월만을 읊는 것을 능사로 삼은 것일 뿐이겠는가? ... 아! 어진 스승이 세대마다 나는 것이 어니고 훌륭한 제자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영주에는 상하수천 년 이래 文節公 金善生(金澹)이 나셨으나 불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후세에 남길만한 말씀이나 후진들에게 교훈이 될만한 일들을 할 겨를이 없었다. 문장이나 덕행으로 성대하게 세상의 종주가 되었고, 또한 훌륭한 제자들을 얻어 교육하면서 서로 도의를 밝힘으로써 우리 후학들을 다행하게 했으니, 오직 선생(박승임)만이 그러한 분이다.⁷⁸⁾

김응조는 ‘응석사회동’을 경치에 취해 음풍농월하는 세속적 모임과는 철저히 구별한다. 그는 이 회동을 영주의 문풍 진작을 넘어 사제간 ‘道義講明’을 통해 영남학의 새로운 ‘집단지성’의 등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소고문파’를 영남학에서 비중이 높은 ‘부분집합’으로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이제 김응조는 소고문파의 수문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표현은 우회적이지만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수문은 金功이었다. 김응조의 인식은 개인적 판단이기보다는 사림사회에서 획득한 聞見, 즉 학문사회적 평판과 자신의 학습과 견해가 결합된 결과였을 것이다.

77) 朴承任, 『嘯皇集』附錄 下, 「凝石寺唱酬錄」〈識〉(朴澹).

78) 金應祖, 『鶴沙集』卷5, 〈凝石寺酬唱錄跋〉.

문하의 제자 柏巖 김선생(金功) 이하 수십 인들이 강석 아래 함장의 거리에 줄지어 조용히 앉아 이어가며 수창하여 한 권의 책을 이루었는데, 이름을 ‘웅석사수창록’이라 하였다.⁷⁹⁾

소고문하에는 연치나 학령으로 볼 때 김륵보다 선배가 많았다. 자신의 조부 金農 또한 그런 존재였지만 김륵을 ‘高弟’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문·사회적 위상, 문집 간행 및 원향론 등 ‘소고추양론’에서 보여준 활동을 고려할 때, 김응조의 평가는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嘯臯門派의 師門認識과 학통 형성

소고문인은 연령에 따라 ‘선진’(1550년 이전 출생)과 ‘후진’(1550년 이후 출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金功·南夢鰲·金農·李中立·李介立·權斗文·金盖國·金隆·裴應璫 등이 ‘선진’에, 任屹·金中淸·琴復古·閔興建·金天英 등이 ‘후진’에 속하는 문인들이다. 이외 朴灋·朴澡·朴檜茂 등 박승임의 자질 및 손자 또한 소고학맥의 핵심 계승자들이다.

金功은 박승임을 公心에 바탕하여 修己와 治人을 행한 선비, 敎學을 통해 文風을 진작시킨 교육자, 이황에 비견될만한 학문을 이룬 醇儒로 평가하고 있다.⁸⁰⁾ 金中淸은 관료로서의 淸愼謹飭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고, 山嶽과 江海와 같은 학문과 인품의 소유자로 인식했으며, 琴復古는 도덕과 문장을 겸비한 백세의 師表로 추앙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吳湏은 문장·덕업에 주목하여 ‘間世의 賢人’으로 평가했고, 李汝鰲은 沈重한 성품과 웅혼한 문장으로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天業으로 여긴 眞儒로 인식했으며, 조카 朴湏에게 박승임은 참된 학문과 확고한 지절을 지닌 氷玉과 같은 학인으로 착상되었다. 10세 때까지 가정에서 侍講했던 손자 朴檜茂는 조부를 이렇게 기억한다.

79) 金應祖, 『鶴沙集』 卷5, <凝石寺酬唱錄跋>.

80) 金功, 『柏巖集』 卷6, <祭嘯臯朴先生文(丙戌)>.

매번 函丈에서 侍坐하면서 조용히 묻고 답할 즈음이면 마치 春風이 감도는 방에 들어간 듯하였다. 일찍이 문생·자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토록 벼슬에 몰두한 나머지 自家의 공부에는 전심하여 힘을 쏟지 못했다. 죽기 전에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이다’고 하셨다.⁸¹⁾

한편 박승임 사후 문집간행 등 각종의 추양사업은 선진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다. 16세기 영주를 대표하는 학자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문집의 편찬 및 수정은 소수서원에서 이루어졌고, 퇴계·남명문인 오운의 적극적인 협찬이 있었다.⁸²⁾

만력 31년 계묘년(1603), 5월에 伊山書院에 가서 竹牖 吳公(吳濤)과 함께 상의하여 소고 선생의 문집을 수정했다.⁸³⁾

金玠·吳濤·裴應璩 등은 문집의 편찬에 있어 精約함을 위주로 하여 문장의 아름다움과 덕업의 성대함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1603년 경 伊山書院에서 이를 간행함으로써 추양론의 단초를 열었다.⁸⁴⁾ 선진그룹이 문집 간행에 역점을 두었다면, 후진그룹은 行狀·墓碣銘 등 墓道文字의 찬술을 주관했다. 그리하여 任屹과 金中淸은 각기 ‘嘯臯行狀’을 지었으며, 묘갈명은 鄭經世가 찬술했다.

문집 간행과 묘도문자의 찬술은 고제집단의 대두를 가시화하였는데, 李象靖은 ‘嘯臯朴先生續集序’에서 金玠·金隆·任屹·金中淸을 嘯臯高弟로 거론했다.

선생의 문하에서 사사한 이로서 金柏巖(金玠), 金勿巖(金隆), 李省吾(李介立), 任龍潭(任屹), 金苟全(金中淸)과 같은 여러 공이 중요한 요지를 전수받아서 후진

81) 朴承任, 『嘯臯集』 附錄 下, 「記聞錄」 <孫檜茂記>.

82) 고령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편,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도서출판 역락, 2007.; 김학수, 「죽유 오운의 생애-학자·관료적 자취와 타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죽유 오운』, 예문서원, 2018.

83) 『伊山書院誌』, 「日記」(朴善長) <癸卯>(1603).

84) 朴承任, 『嘯臯集』 附錄 下, <嘯臯先生續集識>(朴希天撰).

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그 유휘과 남긴 가르침이 성대히 한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수백 년을 거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선생의 도가 또한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당일에 도를 품고도 사용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 않을 것이다.⁸⁵⁾

선진[金玠·金隆]과 후진[任屹·金中淸]을 적절히 안배한 설정인데, 특히 주목할 인물은 김륙과 김중청이다. 김륙은 세종조의 명신이자 15세기 영주의 명현으로 일컬어지는 金湊의 현손이다. 조선 초중기 영주의 학문 전통이 金湊→朴承任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김륙은 가문적 배경도 탄탄했고, 박승임으로부터도 깊은 인정을 받아 일찍부터 고제[首門]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620년 龜城祠(龜城書院)서원에 김담·박승임과 함께 병향됨으로써⁸⁶⁾ 고제로서의 지위를 공인받게 되었다.

하지만 김륙은 당대에 지녔던 학자·관료적 명성에 비해 후진의 양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⁸⁷⁾ 이에 비해 김중청은 김륙보다 26세 연하였음에도 83명의 문인을 배출함으로써⁸⁸⁾ 박승임의 講學 전통 및 기반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

김중청은 8세 되던 1573년 소고문하에 입문하여 박승임이 사망하던 1586년까지 10여년을 수학했다. 그가 이처럼 어린 나이에 입문한 것은 척연과 관련이 있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박승임의 질녀였으므로 김중청에게 박승임은 외종조부가 되었다. 물론 김중청은 이후 趙穆·鄭述 문

85) 李象靖, 『大山集』 卷44, <嘯臯朴先生續集序>.

86) 金玠, 『柏巖集』 附錄, 「年譜」 <庚申>(1620) “士林建祠于龜城 奉安位版 竝享先生高祖文節公先生及嘯臯朴先生”

87) <三松堂南先生行蹟>(南夢鰲, 『三松先生逸稿』)에 따르면, 南夢鰲의 경우 강학활동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수의 문인을 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金盖國·朴善長·琴復古·金九鼎·李興門·金榮祖·朴墩·孫興慶·金泰時·金聲震·朴會茂·黃彥柱·南衢(以上門人)·金應祖·黃益淸·琴是調·金延祖·琴是諧·金昌祖·李汝璣·金慶祖·李成樾·李光前·朴安欽·琴忠達·朴安復·孫會宗·金淮(以上私淑人). 이외 李汝璣도 사우관계의 폭이 매우 넓었던 것으로 파악된다(李汝璣, 『炊沙集』 卷3, <師友錄>).

88) 金中淸, 『苟全集』(苟全先生文集國譯重刊推進委員會, 1999), 「苟全先生門人錄」.

하로까지 사승관계를 확대했고, 張顯光과도 긴밀한 사우관계를 유지하였지만 학문의 근기는 소고문하에서 갖추어졌다. 후일 그가 ‘소고행장’을 찬술하고,⁸⁹⁾ 정구에게 ‘嘯臯墓碣銘’을 축탁한⁹⁰⁾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박승임에 대한 김중청의 강렬한 師承意識은 아래 제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선생과 같은 문장, 선생과 같은 학문, 선생과 같은 器度로도 생전에는 벼슬이 통정에 그쳤고, 사후에는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하니, 오히려 슬프도다. 소자가 당시에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아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실로 교육해 주신 덕분입니다. 명을 받들고 여기에 이르니, 감회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⁹¹⁾

이 제문의 대의는 ‘哀惜論’과 ‘感謝論’으로 집약되는데, 주목할 것은 ‘애석론’이다. 애석론 중에서도 유념할 것은 ‘사후에는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인데, 이 말은 퇴계학파의 학통구조 속에 소고문파가 제외된 것에 대한 일종의 항변으로 읽힌다. 17세기 초반 퇴계학파는 月川門派·鶴峯門派·西厓門派·寒岡門派로 그 판도가 정립되면서 소고문파는 입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학자적 성취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퇴계학파의 주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울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김중청 등 소고문파의 비판적 시각에도 4대문파의 판도는 시기가 지날수록 더욱 고착화되었다. 17세기 후반 서울에서 상주로 이거한 李萬敷(1664-1732)는 17세기 영남학파의 판도를 아래와 같이 평설한 바 있다.

지금 江右 상류의 논의는 柳成龍을 위주로 하여 鄭經世에 미치며, 성주 아래의 논의는 鄭述를 위주로 하여 張顯光에 미치고 있다. 안동 일대는 金誠一과 柳成龍이 함께 칭송되고, 예안 사람들은 趙穆을 가장 존경하는 까닭에 도산서원에 제향된 이는 조목 뿐인 것이다.⁹²⁾

89) 金中淸, 『苟全集』 卷6, <嘯臯朴先生行狀>.

90) 金中淸, 『苟全集』 「年譜」 <己未>(1619).

91) 金中淸, 『苟全集』 卷6, <嘯臯先生祠廟>.

한편 김중청의 ‘苟全門人’은 소고학통의 수용 양상이 뚜렷하다. 구전문인은 크게 반남박씨, 봉화금씨, 영양남씨, 평원이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척연이 학연으로 확대된 양상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반남박씨의 경우 朴煒·朴燧·朴燾 등은 박승임의 종증손들이고, 봉화금씨 가운데 琴尙古·琴信古·琴是律·琴是呂는 소고문인 琴復古의 종제 및 종질들이다. 영양남씨는 南錫圭와 그 아들인 南亨會·南亨久가 구전문하를 출입했고, 평원이씨 출신의 李時旼은 김중청의 손서이며, 야성송씨 출신의 宋大健·宋大德은 송복기의 종손이다. 이는 구전문인이 소고문과의 기반을 착실히 물려받는 가운데 혼맥을 통해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구전문인 가운데 특히 주목할 인물은 이시암과 趙任道이다. 金世濂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구전문하로까지 학문적 외연을 넓힌 이시암은 학문과 행의가 뛰어나 김중청의 큰 기대를 받아 손서가 되었으며, 문과에 합격하여 도사를 지내는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현달하여 구전문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그의 학문은 숙종~영조 때 영남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손자 李光庭(1674-1756)에게로 전해지게 된다. 이는 李滉⇒朴承任⇒金中淸⇒李時旼⇒李光庭으로 이어지는 소고학맥의 계승양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으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요망된다.

함안 출신의 조임도는 장현광의 고제[旅門十賢]이자⁹²⁾ 퇴계학과 남명학의 융합을 추구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⁹⁴⁾ 그는 여헌문하를 출입하기 전에 김중청과 학연을 맺고 있었다. 물론 조임도는 김중청을 嘯臯·月川 양문의 문인으로 인식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천문인에 비중을 둔 측면도 있었지만 그가 李滉⇒朴承任⇒金中淸으로 이어지는 학통 선상에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92) 李萬敷, 『息山集』 卷18, <退陶淵源筆帖跋>.

93)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94) 許捲洙,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化를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11, 2001.

저는 어릴 때 江左를 떠돌며 우거하다가 봉화에 살던 金中淸에게 수학하였는데, 金中淸은 趙月川에게 수학하였고, 月川은 곧 退溪의 문인입니다. 제가 비록 사리에 어둡고 못난 사람이지만 또한 일찍이 道義와 遺風을 들었는데, 이번 소회가 전적으로 퇴계를 攻斥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퇴 여부는 제가 감히 알 바가 아니지만 제가 이번 疏會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⁹⁵⁾

김중청에 대한 조임도의 사송의식은 매우 강렬했는데, 이런 정황은 조문 예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중청이 사망한 것은 1629년 6월 13일이었다. 부고를 들은 조임도는 賻儀를 보내고 애도는 표했지만 신병으로 인해 문상하지 못하다가 1631년 6월 문상을 위해 봉화행에 나섰다.

1631년 6월 6일, 奉化로 조문 걸음을 떠났다. 돌아가신 승지 盤泉 金丈(金中淸)은 내가 어렸을 때 수학한 분이다.⁹⁶⁾

이처럼 조임도는 김중청을 ‘師’로 인식하고 있었고, 학문에 답하기 위해 수백리 문상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임도는 琴援·朴煒·南復初·權慶蘭·朴檜茂 등 박승임의 집안 사람 및 구전문하의 동문들과 재회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30여 년 전을 추억하며 상심에 젖기도 했다.⁹⁷⁾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조임도는 소고·구전학통의 핵심 인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존재는 소고학맥의 江右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VI. 맺음말

16세기 榮州는 조선 최초의 서원 白雲洞書院[紹修書院, 옛 풍기]과

95) 趙任道, 『澗松集』 卷3, <移疏會書(辛亥五月)>.

96) 趙任道, 『澗松集』 別集 卷1, <遠行錄>.

97) 趙任道, 『澗松集』 別集 卷1, <遠行錄>.

이황이 건립에 깊이 관여한 伊山書院의 설립처라는 점에서 한국유학사에서 차지하는 학술문화적 비중이 매우 높은 공간이었다. 서원은 조선 朱子學을 상징하는 존현 및 양사 인프라였던만큼 영주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학문적 선진화를 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박승임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숙성되었던 지역의 학문적 에너지를 수렴하여 하나의 문파를 형성하였는데, 이점에서 嘯臯門派는 16세기 영주지역 집단지성을 일컫는 ‘名’이었다. 이황에 대한 학문적 계승의식이 강렬했던 박승임의 사승관계는 소고문파가 퇴계학의 핵심 지류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다.

박승임은 문장가이자 학자였고, 退溪學을 수용하면서도 南冥學에 대해서도 친연성을 드러냈던 포용형 인물이었다. 무려 16세 연상의 이황과 湖堂에 동선된 것에서는 문신으로서의 秀越性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師道相敬’하며 문인을 교류했던 이황과의 친절했던 사제관계는 그가 溪門高弟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남명학과권 인사들과의 돈독했던 교제는 퇴계학과 남명학의 길항성에 일정한 의문을 가지게 할만큼 열린 행보였다.

그는 뛰어난 문장가라는 당대와 후대의 찬사 속에 학문적 성취와 기여는 蔽塞을 면치 못했지만 『孔門心法』, 『綱目心法』, 『儀禮講錄』, 『性理類選』, 『嘯臯日記』, 『四禮辨解』 등의 저술 목록은 그가 왜 16세기 영주지역 집단지성의 선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웅변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의 학자적 깊이의 가늠자가 될법한 『孔門心法』과 『儀禮講錄』의 부재는 박승임의 학자적 삶의 복원에 있어 커다란 흠결로 남는다.

박승임이 육성했던 문인, 즉 소고문파의 인적 구성원은 총 52명이다. 이는 이른바 퇴계학과 4대문파에 비해 왜소한 편이지만 金功·金隆·任屹·金中淸 등 일부 문인들의 존재는 소고문파의 중량감을 더하기에 손색이 없다. 특히, 그들이 구구했던 학문의 원형질, 즉 퇴계학의 계승의식은 어느 문파보다 강렬했다. 이런 정황은 1635년 이황이 상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喪童說’을 제기한 서인계에 대항하여 ‘辨誣疏’를 올린 주체가 소고문파였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남명학과 퇴계

학의 융합을 모색한 학자로 일컬어지는 趙任道가 박승임의 再傳 제자라는 사실은 소고문파의 江右 학산의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박승임의 호한했던 학문 세계를 주밀하게 밝히지 못했고, 소고문파의 특성과 역사적 전개 과정 또한 향후의 과제로 남겨졌지만 이 글을 통해 박승임을 정점으로 했던 16세기 영주지역의 집단지성, 즉 ‘소고문파’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 진전되어 16세기 영남의 지성사가 보다 정치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원전

『仁宗實錄』

鄭經世, 『愚伏集』

朴承任, 『嘯臯集』

李東吉安樞權敬烈, 『國譯嘯臯先生文集』(韓國國學振興院, 2007)

『國譯綱目心法』(紹修博物館, 2014)

『國譯性理類選』(嘯臯先生紀念事業會, 2005)

李滉, 『退溪集』

姜翼, 『介庵集』

金玘, 『柏巖集』

李象靖, 『大山集』

南夢鰲, 『三松先生逸稿』

李汝鰲, 『炊沙集』

李萬敷, 『息山集』

黃俊良, 『錦溪集』

李萬敷, 『息山集』

趙任道, 『澗松集』

河受一, 『松亭集』

成汝信, 『浮查集』

『臨臯書院尋院錄』

『玉山書院誌』(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編, 1993)

鄭述, 『寒岡集』

李光胤, 『瀼西集』

金應祖, 『鶴沙集』

金中淸, 『苟全集』

2. 논저

고령대가야박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편,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도

서출판 역락, 2007.

남명학연구원편, 『介庵 姜翼』, 예문서원, 2017.

남명학연구원편, 『죽유 오운』, 예문서원, 2018.

연세대학교 서애학술연구단 편, 『서애 학맥의 역사와 공간』, 선인, 2017.

鄭萬祚, 『朝鮮時代書院研究』, 집문당, 1997.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土谷 마을의 인문환경 : 시간·공간 그리고 인간」, 『남명학연구』 62, 2019.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2010.

김학수, 「하동 安溪 마을의 인문 환경 -學術文化 인프라의 조성 및 경영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58, 2018.

김학수,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の 學風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유교 문화』 55, 2014.

서정문, 「朝鮮中期的 文集編刊과 門派形成」,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 3, 1993.

안병걸, 「강목심법 해제」, 『국역강목심법』, 소수박물관, 2014.

許捲洙,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化를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 11, 2001.

황위주, 「體泉地域의 退溪學脈」, 『韓國의哲學』 28, 2000.

Abstract

**Bak Seung-im's Academic Orientation and 'Collective Intelligence'
in the 16th Century Yeongju Area**

Kim, Hak-su

This research As a subset of Toegye Study,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intellectual society of the 16th century Yeongju area, and sets up Bak Seung-im as its key figure. Bak Seung-im spent much of his life in relationships as an elite civil official but left a considerable number of works focused on learning. Although his teacher Yi Hwang and his trails of life were very similar, Joseon's Neo-Confucian literati only remembered him as a writer and refused to recognize his status as a scholar. This goes against the facts, and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explanation of collective oblivion or collective indifference directed at Bak Seung-im.

The whole thing of the Toegye School is not something that exists from the beginning. The sum of local studi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literary circle, is only conceived as a school. The denomination of Toegye Study in Yeongju area was the Sogo-literary group[嘯臯門派], which was fostered by Bak Seung-im. The Sogo literary group preceded the Wolcheon, Hakbong, Seoae and Hangang literary group,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four major literary groups in Toegye

Study, and the group was condensing its academic and cultural capacity which can stand comparison with any other literary group. This is why Bak Seung-im and Sogo literary group should pay renewed attention to the theory of Toegye Study.

keywords

Bak Seung-im(朴承任), Yeongju(榮州), Toegye literary group(退溪學派), Yisan Seowon(伊山書院), Sogo literary group(嘯臯門派)